

DEAR.

안녕하세요 Q.

저는 한 신앙관념을 형성하고 싶어 여러모로  
시도해 보았으나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편지를 들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오후 5시경 (등명해수욕장)

엄마께서 저한테 아버지가 (늘고있다) 무섭다(고 울면서)  
전하(가) 119로 전하(하라)고 사(가) 후 10분도 안되어  
구급차가 도착하니 신앙관념은 아버지 상(대)살(기)고  
방향북(입)인 열 39°라 열손가락 (다)다(고) 산소(흡)기(음)  
이(상)병(원)으로 출발(신)식(후) 저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달(리)다 20분(후)에 만난 아버지는 의(식)이 불(미)리(기)  
빠(고)날(은) 비(가) 많이(내)려 방(향)북(입)인 유(전)하(기) 이(려)  
날(세)어(요)습(니다) (열(을) 불(속)하(고)이(세)요)  
병(원)은 드(음) 엄(마)우(로)하(고) 우(독)한 아버(지)  
응(급)조(치)하(고)하(고) ...

DEAR.

방울트락 후

몇분만에 의류선 총집합

아버지 머리맡에는 링거병개가 달라고

자가흡입이 안되어 인공 호흡기 붙어야 된다는

선생님 말에 저는 (널리) 무섭진 눈물만 났었어요

그런중에 신방안님께서 제 옆에서 내뿜은 거대한

제가 공부해하든 다알려주시고 이젠부터 저건부터

가르쳐주시고 의류선 헌밭뒤에서 아버지의

지켜봐 주셨던 신방안님 지금도 그 모습 생생하진

않을수가 없습니다 (과식능기만 받으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중 20분쯤 되었을 무렵 조용히 저희는

가방을 들고 이사를 하고 돌아가셨고 그대부터

유언을 하는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후 결하는



DEAR.

(신우신염의 폐혈증이 있어서 열이 39°까지  
올랐으며 쇼크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응급진료 후 중환자실에서 이틀  
일반병동에서 ~~이~~ 2주 있다가 영증치료를 다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엄마의 119접수와 소방관님들의  
바느질과 신속한 응급진료가 저희 아버지께서  
다들 집으로 돌아올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제가 소방관님들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집에 도착해서 부터 응급실에서 돌아가실(대)까지  
언제든 환자만의 안전을 위해서  
제후에 ~~반~~ ~~면~~ ~~역~~ ~~서~~ ~~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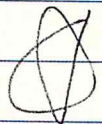


DEAR.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리아 감동은 아버지 병원)에 살(대  
선배 소방관님)께서 저희 감동을 전해주어  
아버지 어르신도 좋아하셨을 것  
저희 가족은 그 소방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 선배 소방관님 병 100 개 )  
( 후배 " 병 99 개 )



제 마음이 전답이 ~~전~~되있으니 느긋하지만  
소방관님들 늘 행복하시길 항상 건강하시길  
시원들결합기 지켜주세요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